

한개 층을 오르내리는 승강기

2009년 8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도 평양에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을 찾으시였을 때는 한낮의 찌는듯한 무더위가 채 가셔지지 않은 저녁무렵이었다.

풍성한 매대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에게 이제는 맛있는 과일, 고기가공품들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종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2층 고기가공품매대까지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상점안의 계단을 다시 눈여겨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기에 승강기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2층짜리 건물이다보니 설계할 때부터 승강기는 예견하지 않았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상점인데 승강기를 꼭 놓아야 한다고, 나이많은 사람들이 2층까지 걸어서 오르자면 힘이 들것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일없겠지만 나이많은 사람들과 녀성들이 상품을 사가지고 층계를 오르내리자면 불편을 느낄수 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아무리 날자가 긴장해도 승강기를 설치해놓고 문을 열도록 하자고 간곡한 당부를 하시고 상점을 떠나시였다.

불과 28개밖에 안되는 계단이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이 인민들에게 불편을 줄가봐 그리도 마음쓰시며 한개 층을 오르내리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신것이였다.